

건협 강원도회, 건설산업 실태진단 위한 건설정책 포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사진)은 30일 오후 1시40분부터 강원연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한토목학회 강원지회와 강원연구원 공동으로 '강원 건설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산업 관련 학계와 연구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만큼 건설산업 발전과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의 추진배경은 강원도 건설산업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강원도 건설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산·학·관·연의 협력체 활성화와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오인철 회장은 “도로, 상하수도, 주거시설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지역의 노후 인프라 시설 복구와 개발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신규사업에 노후 인프라 개발사업이 더해진다면 건설산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